

그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다

고창농촌영화제, 내일 복분자클러스터 일원서 개최... 개막작 '여름이 준 선물'
한중일 농촌영화 특별전, 전국 농부들이 직접만든 단편 영화 상영도 관심 집중

제2회 고창농촌영화제의 개막작이 이영재 감독의 미개봉작 '여름이 준 선물'로 선정됐다. 18일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20일 개막하는 '제2회 고창농촌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이영재 감독의 미개봉작 '여름이 준 선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는 죽음을 관찰하고 싶은 세 소년의 다소 영동한 모습을 통해 주인공들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그렸다. 조직위는 "맑고 순수한 농촌 아이들과 우리네 이웃집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영재 감독은 고창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99년 내 마음의 풍금'을 촬영할 때 바로 조산분교(고창군 고수면 조산리)가 영화촬영의 메인 로케이션 장소였다. 영화제는 이영재 감독의 대표작 '내 마음의 풍금'을 개봉 20주년을 맞아 감독의 설명을 곁들여 상영해 군민들의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또 농촌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과 한중일 대표 작품들도 소개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중국의 양선 감독의 '나의 붉은 고래(2017)'와 한국의 인재훈 감독의 '소나기(2017)' 일본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빨간머리 앤: 네버엔딩스토리(2009)'이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한중일 대표 농업 영화도 상영되면서 주변국 농촌 풍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영화는 중국 쉐카이 감독의 '황토지(1984)', 한국 김소동 감독의 '돈(1988)', 일본 히가시 요



제2회 고창농촌영화제의 개막작 이영재 감독의 '여름이 준 선물'

이치 감독의 '그림 속 너의 마을(1986)'이 상영된다.

농부가 직접 만든 농업·농촌 영화도 주목받고 있다. 경북 상주 박동일 감독의 '산촌에 간 아가씨들', 경기 용인 황동욱 감독의 '쌈말이야기', 충남 서천 노영미 감독의 '태모시', 전북 군산 나종식 감독의 '고추이야기', 전북 임실 한미연 감독의 '비온뒤' 등이 상영된다.

영화제의 마지막은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제작한 단편영화 발표로 장식한다. 마스터클래스는 봉만대, 임성운, 김재현 감독이 청년 및 고창마

을 주민들과 함께 팀을 꾸려 영화제가 열리는 4일 동안 단편영화를 제작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군민이 직접 영화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마스터클래스는 이번 영화제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 관계자는 "영화를 통해 우리 농촌 풍경을 이야기하고 그 소중함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의 이야기와 앞으로 지어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장경문화학교가 운영하는 완판본문화관과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의 HK+사업단이 최근 완판본문화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완판본문화관,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 HK+사업단과 협약

대장경문화학교가 운영하는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과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의 HK+사업단(한자문명연구소사업단 단장 하영삼)은 최근 완판본문화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는 한편 공동 연구, 출판물 및 관련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는 한자연구의 대표 기관으로 인문학플러스 지원 사업 해외지역분야에 선정돼 '한자와 동아시아 문명 연구-한자로드의 소통(疏通), 동인(動因), 동향(導航)'을 주제로 7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한자문명연구소사업단은 ▷학술연구센터 ▷국제협력과 성과확산센터 ▷지역인문학센터 등 3개의 센터를 중심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한자문화 자산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한자문화 자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주요 방향으로 한국의 인쇄문화

와 한자 문화 자산을 융합한 고품격 연구, 전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양측은 한국 고유의 인쇄문화와 한자가 지식을 생산·유통해 온 역사적 경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와 동아시아 한자문명에서 가지는 가치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준영 관장은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술을 통해 한중일 한자의 현시대적 의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인쇄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세계의 연구자들에게 선보여 가장 한국다운 문화 콘텐츠를 보여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영삼 단장은 "문자중심주의 문명의 특징과 역사에서 인쇄 문화는 중요한 방향이다. 완판본문화관과 이산책판박물관은 인쇄 문화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전시, 교육, 강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업단의 연구 성과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가위박물관 집중 홍보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23일까지 특별전시

진안군은 가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위 유물과 퀼트를 알리기 위해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전주한옥마을 내 교동미술관에서 23일까지 열린다.

퀼트를 제작한 스튜디오 문과 함께한 이번 전시는 바느질 도구에서 빠질 수 없는 가위와의 인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전시다.

퀼트를 활용한 한복의 변천사와 가위무늬가 새겨진 퀼트 소품, 퀼트 제작 시 사용한 가위, 진안가위박물관 소장 한가위, 울가위 등 가위유물 24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전시 여세를 가지고 진안가위박물관 방문 시 황새가위를 증정(선착순 50명)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군은 이번 전시로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가위박물관은 물론 가위리는 독창적 콘텐츠를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위 유물과 퀼트를 알리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내 교동미술관에서 23일까지 특별전시를 한다.

가진 진안군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퀼트 및 가위 관련 문화예술단

체와 연계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변을 확대해 세계적인 가위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음풍류와 신명나는 국악의 만남

시립국악단 상설공연 21일 정음사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

시립국악단의 6월 상설공연 '정음풍류락(樂)'이 오는 21일 정음사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상거지로 돌아온 이몽룡과 장모 율매의 해학적 만남을 다룬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을 관람객들이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도록 단막 창작극으로 마련했다. 새내기 국악단원들은 대나무 향을 머금은 대금 연주곡 '죽향'과 사랑을 담은 퓨전 국악가요 '사랑가'를 준비했다.

특히 국악단은 정음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담아 새롭게 창작한 '달하가, 정음차가(茶歌)'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정음풍류가', '진정함 봄', '정음노정기(路程誌記)', '상춘곡', '달하무' 등 정음을 대표하는 소재와 신명 나는 국악이 어우러진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신명나게 구성했다"며 "가족과 친구, 지인 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국악의 고장 정음도 맘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립국악단은 지난달부터 매일 다채로운 상설·특별 국악공연을 시민에게 무료로 선보이고 있다.

/정음=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